

남양주시, 해군 다산정약용함과 협약 체결...시민 체험 기회 확대

경기=노진균 기자 입력 2026. 1. 22. 15:08



22일 주광덕 남양주시장(왼쪽)과 구본철 다산정약용함 함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
/사진제공=남양주시

경기 남양주시는 해군 다산정약용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.

이번 협약은 다산 정약용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군이 함께 공공 가치를 실현하고,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. 양 기관은 △문화 교류 △공립 교육 △시민 참여형 안보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.

시는 다산정약용함이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이라는 상징 플랫폼인 점에 주목해, 이를 통해 '다산정약용브랜드'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.

주요 협약 내용에는 △다산 브랜드 자산 공동 활용 △민·군 교류 프로그램 운영 △해양·안보 교육 협력 등이 포함된다.

해군 관계자들은 협약식 이후 정약용 묘소 참배를 시작으로 △다산 철학 특강 △궁집·정약용편 그라운드 탐방 △전통 다도 체험 등 '공림연수'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, 정약용 정신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.

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군 장병 대상 공공가치 교육을 지원하고, 해군은 시민 대상 부대견학 및 안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속 가능한 상호 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

주광덕 시장은 "남양주시와 해군이 정약용이라는 이름 아래 만나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게 돼 의미가 깊다"며 "시민과 장병 모두에게 뜻깊은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"고 말했다.

다산정약용함은 오는 12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며, 시는 해당 시점에 맞춰 해군과의 공식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이다.

경기=노진균 기자 njk6246@mt.co.kr

머니투데이 & mt.co.kr. 무단 전재 및 재배포, AI학습 이용 금지.